

[이 전시]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지평선, 그 고요속으로 [이 전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19:42 수정 : 2021.03.29 19:42

필립 미쇼-뤼즈 展



필립 미쇼-뤼즈 '봄'(2021년)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갤러리 제공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요즘.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회색의 도시, 빌딩 속에서 상상한다. 창 밖으로 너른 들판이 보인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끝없이 수평으로 이어지는 자연. 봄비에 젖어 물을 잔뜩 머금은 듯한 자연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마치 수묵화의 번짐처럼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빛과 연둣빛이 서로 경계를 흐리며 물들이고, 밤하늘의 남빛이 대지까지 번져올 것이다. 프랑스 미술작가 필립 미쇼-뤼즈는 이러한 자연을 향한 그리움을 창과 같은 캔버스에 담아냈다.

전업 화가로 활동하기 전 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인류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정신분석가로도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날 독일 철학자들이 평한 '지평선'에 대한 관념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그의 작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쇼-뤼즈는 그의 작업을 통해 먼 곳과 가까운 곳, 나타남과 사라짐, 영원성에 대한 시작점의 표상으로서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지평선을 담아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풍경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봄을 알리는 푸른 새싹이 피어난다. 이윽고 청명한 여름 하늘이 지나가면 이내 노을빛 머금은 가을이 찾아오고 또 시린 겨울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는다. 그의 그림에는 비 오는 날의 풀숲과 새벽 동틀녘의 지평선이 그렇게 담겨 있다.

어린 시절을 스페인의 북서부 '시에라 데 그레도스' 산맥에서 보냈다는 작가는 "푸르고 광활한 그 산을 기억하며 그 자연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아크릴 물감에 운모 가루를 섞어 빛에 따라 미묘하게 반짝이는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내면의 풍경을 바라보고 고요히 명상에 빠지게 된다. 전시는 5월 29일까지 서울 자하문로 브루지에-히가이 서울 갤러리.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